

제 102 회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		-		-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예시>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團 漢字教育振興會

韓國漢字實力評價院

제102회 한자실력급수 [사범급] 문제지

객관식 (1~50번)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汨] ① 嶸 ② 穎 ③ 霓 ④ 羸
2. [鬢] ① 玼 ② 妣 ③ 圮 ④ 秕
3. [怛] ① 姁 ② 捏 ③ 辣 ④ 獺
4. [僊] ① 韃 ② 喘 ③ 蘚 ④ 餞
5. [稈] ① 軒 ② 悍 ③ 侃 ④ 阜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肩] ① 挈 ② 媠 ③ 褻 ④ 梢
7. [簽] ① 瞼 ② 詹 ③ 忝 ④ 恬
8. [嵌] ① 斂 ② 橄 ③ 擘 ④ 紺
9. [鍋] ① 顆 ② 跨 ③ 裹 ④ 窩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礪] ① 碗 ② 砥 ③ 礪 ④ 礪
11. [恢] ① 廐 ② 廩 ③ 廓 ④ 庠
12. [戾] ① 悉 ② 乖 ③ 勃 ④ 罕
13. [狎] ① 罍 ② 咄 ③ 砦 ④ 昵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麀 ② 庇 ③ 廩 ④ 廬
15. ① 與 ② 舅 ③ 盥 ④ 興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蚊蠅: 문승 ② 綽約: 도약
③ 芹誠: 근성 ④ 蛇蝎: 사갈
17. ① 樓櫓: 누로 ② 咐囑: 부속
③ 梟騎: 효기 ④ 難澁: 난삽
18. ① 環經: 환질 ② 覈實: 핵실
③ 微恙: 미고 ④ 浸漬: 침지
19. ① 供饋: 공귀 ② 茯苓: 복령
③ 絨緞: 용단 ④ 焙籠: 배롱
20. ① 快宿: 앙숙 ② 司饗: 사옹
③ 粉餌: 분이 ④ 翅果: 지과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두 사람은 [철조망]을 기어올라 경계선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① 鐵組網 ② 綴組網 ③ 鐵條網 ④ 綴條網
22. 우리 아이가 또래 학습 도우미로 활동하던니 성격이 부쩍 [활발]해졌다.
① 活撥 ② 活醜 ③ 活跋 ④ 活潑
23. 그의 신곡은 외국 음악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① 慄竊 ② 剽竊 ③ 慄截 ④ 剽截
24. 주전자 뚜껑에는 수증기가 맺혀 맑은 [증류수]가 한 줌 정도 고여 있었다.
① 蒸溜水 ② 甌溜水 ③ 蒸溜水 ④ 甌溜水
25. 배에서는 기생들의 노랫소리와 악공들의 풍악 소리가 [질탕]하게 일어났다.
① 迭宕 ② 迭盪 ③ 跌宕 ④ 跌宕
26. 초라한 걸모습만 보고 사람을 [괘시]해서는 안 된다.
① 适猜 ② 愬猜 ③ 适視 ④ 愬視
27. 그 아저씨는 주위의 [빈축]을 무시하고 새 치기를 했다.
① 嘖蹙 ② 濱蹙 ③ 嘖蹙 ④ 濱蹙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형국장에서 형조 판서가 윤 대감을 끌려 앓힌 채 []하였지만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① 拿捕 ② 捻挫 ③ 推鞠 ④ 孩提
29. 그는 나이가 어린 국왕이 등극하자 []한 역심을 품었다.
① 慙悔 ② 僭濫 ③ 輯要 ④ 賑恤
30.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 글꼴, 색상 등을 문서에 표현할 수 있다.
① 掛鏡 ② 騙取 ③ 罨線 ④ 梘子
31. 이야기는 마법사가 신의 []을/를 받고 신전에서 쫓겨나는 데서 시작한다.
① 熾熱 ② 忖度 ③ 詛呪 ④ 醮禮
32. 중국의 주공은 민심을 []하고 정무를 보살피느라 잠시도 편안할 틈이 없었다.
① 收攬 ② 閱覽 ③ 觀覽 ④ 典攬
33. 구제역으로 많은 가축들이 []되었다.
① 脯脩 ② 顛覆 ③ 聚落 ④ 斃死

34. []은/는 상소보다는 그 서식이 간단하면 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① 札記 ② 嗟歎 ③ 筍子 ④ 參酌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여러 사물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

- ① 逗留 ② 淵藪 ③ 剿討 ④ 飈馳

36. 미리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함.

- ① 稠密 ② 綢繆 ③ 構兵 ④ 詣闕

37.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줄임.

- ① 徭役 ② 逋脫 ③ 圃師 ④ 俵災

38. 예전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벼슬아치의 집에서 사사로이 부리는 하인이 일반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는 일.

- ① 辟除 ② 鈎勒 ③ 覬望 ④ 禁飭

39.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거나 일이 되어 감.

- ① 粢盛 ② 潺湲 ③ 荏苒 ④ 苧布

40. 쪽정리와 겨를 아울러 이르는 말. 하찮은 물건.

- ① 億衰 ② 轡紐 ③ 分蘖 ④ 糝糠

41.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힘차게 나아감.

- ① 脈盡 ② 猛烈 ③ 驀進 ④ 萁莢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庖丁解牛]

- ① 옛 친구를 만나 정담을 나눔.
 ② 기술이 매우 뛰어남을 비유하는 말.
 ③ 갖가지 너저분한 짓을 하는 잡된 무리들.
 ④ 남의 글귀를 토막토막 표절함.

43. [一敗塗地]

- ① 죄과에 대한 처분을 기다림.
 ② 자신의 역량을 모르고 무모하게 도전함.
 ③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룸.
 ④ 엉뚱한 곳에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는 상태.

44. [噬臍莫及]

- ①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음.
 ② 운명이나 흥망을 걸고 단판으로 승부나 성패를 겨루려는 상태.
 ③ 세속의 욕심을 초월하여 살아감.
 ④ 남의 것을 가져다 자기 것으로 삼음.

45. [泣斬馬謖]

- ①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일이 몹시 바쁨.
 ② 낡은 습관이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을 취함.
 ③ 힘이 강한 두 사람이 겨룸.
 ④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箴>

人心之動	因言以宣
發禁躁妄	內斯靜專
矧是樞機	興戎出好
吉凶榮辱	惟其所召
傷易則㉠	傷煩則㉡
己肆物忤	出悖來違
非法不㉢道	欽哉訓辭

(나) <詠井中月> - 李奎報

山㉣貪月色 并汲一瓶中
 到寺㉤方應覺 瓶傾月亦空

46. (가)의 제목으로 ㉠에 알맞은 것은?

- ① 動 ② 視 ③ 聽 ④ 言

47. ㉠과 ㉡에 들어갈 漢字로 짝지어진 것은?

- ① 誕-支 ② 虛-支 ③ 誕-離 ④ 虛-離

48. 문맥상 밑줄 친 ㉢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도리 ② 규칙 ③ 말하다 ④ 이끌다

49. ㉣에 들어갈 漢字로 알맞은 것은?

- ① 婢 ② 僧 ③ 衆 ④ 仙

50. 문맥상 밑줄 친 ㉤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바야흐로 ② 방향
 ③ 방법 ④ 네모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窪 ()
- 주2. 諶 ()
- 주3. 睟 ()
- 주4. 唳 ()
- 주5. 齎 ()
- 주6. 冪 ()
- 주7. 祔 ()
- 주8. 梳 ()
- 주9. 眸 ()
- 주10. 緞 ()
- 주11. 輅 ()
- 주12. 竅 ()
- 주13. 靄 ()
- 주14. 盼 ()
- 주15. 捌 ()
- 주16. 萑 ()
- 주17. 堰 ()
- 주18. 眄 ()
- 주19. 竈 ()
- 주20. 吮 ()
- 주21. 糯 ()
- 주22. 芟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臧 ()
- 주24. 豁 ()
- 주25. 芻 ()
- 주26. 黴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쇠뇌 노 ()
- 주28. 줌먹을 려 ()
- 주29. 찌끼 사 ()
- 주30. 맑은술 제 ()
- 주31. 통나무 박 ()

- 주32. 비탈 피 ()
- 주33. 목멜 액 ()
- 주34. 가는대 소 ()
- 주35. 초 해 ()
- 주36. 공경할 옹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劈 關 裨 沸 創 蔭 塑 閑
------	-----------------

- 주37. ○將 ○益 寄與補○ ()
- 주38. ○職 茂○ ○德 ()
- 주39. ○開 ○破 ○頭 ()
- 주40. ○像 可○性 ○造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殫竭 ()
- 주42. 嫩芽 ()
- 주43. 詆辱 ()
- 주44. 短蓍 ()
- 주45. 鋤犁 ()
- 주46. 城堞 ()
- 주47. 誘掖 ()
- 주48. 忌諱 ()
- 주49. 黼黻 ()
- 주50. 蠹書 ()
- 주51. 矮軀 ()
- 주52. 釉藥 ()
- 주53. 這間 ()
- 주54. 鰓骨 ()
- 주55. 顛頊 ()
- 주56. 懊惱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

- 주57. 잎이 [조락]해 버린 나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더욱 쓸쓸하구나. ()
- 주58. 제왕의 죽음을 [조락]이라고도 한다. ()
- 주59. 짐승 소리 [은은]한 킁킁한 밀림 속으로 탐험대가 지나간다. ()
- 주60. 방 안에는 [은은]한 묵향이 그득 배어 있었다.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着○嚴囚] 죄인에게 칼을 씌워 가두던 일. ()
- 주92. [賣官○爵]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킴. ()
- 주93. [南○北枳] 사람은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착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됨. ()
- 주94. [膏○珍味]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
- 주95. [彫心○骨] 시문 따위를 애를 써서 다듬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96. [○衣之戲] 늙어서 효도함을 이르는 말. ()
- 주97. [狗尾續○] 벼슬을 함부로 줌.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없는 것이 뒤따름. ()
- 주98. [○海風波] 벼슬살이에서 겪는 온갖 험한 일. ()
- 주99. [淫談○說] 음탕하고 도리에 벗어나는 상스러운 이야기. ()
- 주100. [淺學○才] 학문이 얇고 재주가 변변치 않다는 뜻으로, 자기 학식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그는 꾸준히 노력한 끝에 [彫蟲篆刻]의 경지에 도달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
- 주102. 국토의 확장, 찬란한 대륙 문물의 수입은 [康衢煙月]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였다. ()
- 주103. 그 회사의 경영진들은 내실화보다는 무리하게 사업 확장만을 고집하더니 결국은 부도가 나면서 [涸轍鮒魚]의 신세가 되었다. ()

- 주104. [猫項懸鈴]처럼 실행하지도 못할 방안보다는 실제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방법을 찾아보자.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으르렁대는 호랑이가 개필에 빠지듯이] 그는 큰소리만 쳤지 결국 일을 이루지 못했다. ()
- 주106. 접촉사고로 경찰서에 온 그들은 몹시 분해하며 [이를 갈고 팔을 걷어붙이며] 싸웠다. ()
- 주107. [못사람의 말이 쇠도 녹일 수 있듯이]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 주108. 그 약만 먹는다면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듯이] 병이 말끔히 나을 듯했다.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走獐落兔 ()
- 주110. 隔靴搔癢 ()
- 주111. 白飯蔥湯 ()
- 주112. 得隴望蜀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雉之未備 鷄可備數 ()
- 주114. 天雖崩 牛出有穴 ()
- 주115. 昔以甘茹今乃苦吐 ()
- 주116. 十人之守 難敵一寇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他異悔惑學承奉疑放本賓夫正

주117. 多聞闕○하고 慎言其餘則寡尤며 多見闕殆하고 慎行其餘則寡○니라 《論語》

주118. 出門如見大○하며 使民如○大祭니라 《論語》

주119. 君子는 食無求飽하며 居無求安하며 敏於事而慎於言이요 就有道而○焉이면 可謂好○也已니라 《論語》

주120. 學問之道無○라 求其○心已而矣니라 《孟子》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枯爲是達倫到糞豈焉成軌朽作

주121. 今天下 車同○ 書同文 行同○이니라 《中庸》

주122. 里仁이 ○美하니 擇不處仁이면 ○得知리오 《論語》

주123. 欲速則不○하고 見小利則大事不○이니라 《論語》

주124. ○木은 不可雕也며 ○土之墻은 不可圻也라 《論語》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주125. [己不獸畏而也走知虎]하고 以爲畏狐也라 《戰國策》

국역: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여 달아나는 줄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한 것이라고 여겼다.

주126. 學不可以已니 靑取之於藍而靑於藍이요 [寒之而爲於水水冰]라 《荀子》

국역: 배움은 그만둘 수 없으니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으나 쪽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었으나 물보다 차다.

주127. 德之流行은 [令速郵於而傳置]이라 《孟子》

국역: 덕의 퍼짐은 역참에 파발마를 두고 명령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

주128. [蹊下自言成不李桃]라 《史記》
국역: 복숭아나무나 오얏나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아래에는 저절로 지름길이 생긴다.

※ [] 부분을 국역하시오.

주129. [博施於民하여 而能濟衆이라] 《論語》

주130. [老吾老하여 以及人之老하며] 幼吾幼하여 以及人之幼하라 《孟子》

주131. 古者에 言之不出은 [恥躬之不逮也니라] 《論語》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久雨> - 丁若鏞
窮居罕人事 恒日廢衣冠
①敗屋香娘墜 荒畦腐婢殘
睡因多病減 ②愁賴著書寬
久雨何須苦 晴時也自歎

(나) <鄭瓜亭> - 李齊賢
憶君無日不霑衣
政似春山③축자규
④爲是爲非人莫問
只應殘月曉星知

주132. ①을 국역하시오.

주133. ②을 국역하시오.

주134. (가)의 형식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135. (가)의 주제를 쓰시오.

주136. ④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137. ③을 국역하시오.

주138. (나)의 주제를 쓰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歸去來兮여 請息交以絕游라
 世與我而相違하니 復駕言兮焉求리오
 悅親戚之情話하고 樂琴書以消憂로다
 農人告余以春及하니 將有事于西疇로다
 或命巾車하고 或棹孤舟하여
 ㉠既窈窕以尋壑하고 亦㉡기구而經丘하니
 木欣欣以向榮하고 泉涓涓而始流라
 羨萬物之得時하고 感吾生之行休로다
 已矣乎라 ㉢寓形宇內復幾時오
 曷不委心任去留하고 胡爲乎遑遑欲何之오
 富貴는 非吾願이요 帝鄉은 不可期라
 ㉣懷良辰以孤往하고 ㉤或植杖而耘耔라
 登東臯以舒嘯하고 臨清流而賦詩라
 ㉥聊乘化以歸盡하니 樂夫天命復奚疑아
 《古文眞寶》

- 주139. ㉠을 국역하시오.
 ()
- 주140.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1. ㉢을 국역하시오.
 ()
- 주142. ㉣을 국역하시오.
 ()
- 주143. ㉤의 독음을 쓰시오.
 ()
- 주144. ㉥을 국역하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尹准가 少時에 有鄉里之行하여 ㉠暮投逆
 旅하니 主人이 不許止宿하여 坐於庭邊이라
 主人兒가 持大眞珠出來라가 落於庭中이
 어늘 傍有白鵝하여 卽吞之라 ㉡俄而主人이
 索珠不得하고 疑公竊取하여 縛之하여 朝
 將告官이라 公不與辨하고 只云 ㉢彼鵝亦
 繫吾傍하라하다 ㉣將朝에 珠從鵝㉤後出하
 니 主人이 慚謝曰 昨何不言고하니 公曰
 昨日言之면 則主必割鵝 ㉥索珠라 故로
 忍辱而待라 하더라. 《燃藜室記述》

- 주145. ㉠을 국역하시오.
 ()
- 주146. ㉡의 뜻을 쓰시오.
 ()
- 주147. ㉢을 국역하시오.
 ()
- 주148. ㉣을 국역하시오.
 ()
- 주149. ㉤이 가리키는 몸의 부위인 2음절 漢字語
 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50. 문맥에 맞게 ㉥의 ‘훈과 음’을 쓰시오.
 ()

- 수고하셨습니다 -

합격자 발표: 2020. 12. 17. (목)
 결 과 조 회: 홈페이지 (www.hanja114.org) 접속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필수 기재)

제102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객관식 ■

1	③	6	④	11	③	16	②	21	③	26	④	31	③	36	②	41	③	46	④
2	①	7	①	12	②	17	②	22	④	27	①	32	①	37	④	42	②	47	①
3	④	8	③	13	④	18	③	23	②	28	③	33	④	38	①	43	③	48	③
4	③	9	④	14	①	19	①	24	①	29	②	34	③	39	③	44	①	49	②
5	③	10	②	15	③	20	④	25	④	30	③	35	②	40	④	45	④	50	①

■ 주관식 I ■

주1	웅덩이 와	주21	찰벼 나	주41	탄갈	주61	販→辦	주81	兵站
주2	참 심	주22	벨 삼	주42	눈아	주62	碧→擘	주82	陶俑
주3	돌 수	주23	臣	주43	저욕	주63	砂→些	주83	濾過紙
주4	핥을 색	주24	谷	주44	단시	주64	坦→綻	주84	邀擊
주5	가져올 재	주25	艸	주45	서러	주65	炫→絢	주85	繡帶
주6	덮을 먹	주26	黑	주46	성첩	주66	穿鑿	주86	救命胴衣
주7	합사할 부	주27	弩	주47	유액	주67	雨雹	주87	花卉
주8	빛 소	주28	蠡	주48	기휘	주68	烽燧臺	주88	鬚髯
주9	눈동자 모	주29	渣	주49	보불	주69	心臟搏動	주89	石窟庵
주10	벨 치	주30	醞	주50	두서	주70	穢土	주90	駢儷文
주11	수레 로	주31	樸	주51	왜구	주71	元嗔煞	주91	枷
주12	구멍 규	주32	陂	주52	유약	주72	貶毀	주92	鬻
주13	아지랑이 애	주33	縊	주53	저간	주73	驅儼	주93	橘
주14	눈예쁠 반	주34	篠	주54	새골	주74	拊踊	주94	梁
주15	깨뜨릴 팔	주35	醯	주55	전육	주75	圖讖說	주95	鏤
주16	쑥 루	주36	顛	주56	오뇌	주76	臆測	주96	斑
주17	방죽 언	주37	裨	주57	凋落	주77	齷齪	주97	貂
주18	애꾸눈 면	주38	蔭	주58	殂落	주78	幼稚園	주98	宦
주19	부엌 조	주39	劈	주59	殷殷	주79	執拗	주99	悖
주20	빨/핥을 연	주40	塑	주60	隱隱	주80	蜃氣樓	주100	菲

제102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주관식 II ▣

주101	X	주118	賓, 承	주135	장마철 농촌의 궁핍한 삶.
주102	O	주119	正, 學	주136	蜀子規
주103	O	주120	他, 放	주137	옳거니 그르거니 사람들이 묻지 마오.
주104	O	주121	軌, 倫	주138	님을 그리워함.
주105	咆虎陷浦	주122	爲, 焉	주139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찾아가고 (이미 깊숙이 골짜기를 찾고)
주106	切齒扼腕	주123	達, 成	주140	崎嶇
주107	衆口鑠金	주124	朽, 糞	주141	형체를 기탁함이 또 얼마랴? (이 몸이 세상에 남아 있을 날이 얼마랴?)
주108	雲捲天晴	주125	虎不知獸畏己而走也	주142	좋은 시절에 홀로 갈 것을 바라면서 (좋은 때라 생각되면 혼자 거닐고)
주109	뜻밖의 이익이 생김	주126	氷水爲之而寒於水	주143	흑치장이운자
주110	성에 차지 않거나 철저히 못한 안타까움	주127	速於置郵而傳令	주144	애오라지 자연의 변화에 따라 생을 마치고
주111	반찬이 없는 검소한 음식	주128	桃李不言 下自成蹊	주145	저물녘 여관에 투숙하려 하다.
주112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	주129	백성들에게 널리 사랑을 베풀어 민중을 어려움에서 구제한다.	주146	얼마 후
주113	꿩 대신 닭.	주130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며	주147	저 거위도 역시 내 곁에 묶으시오
주114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주131	몸소 실천함이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해서였다.	주148	아침이 될 무렵
주115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주132	밝은 집엔 노래기 떨어져 기어가고	주149	肛門
주116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 놈을 못잡는다.	주133	글 짓는 일로 수심을 달래 보네	주150	찾을 색
주117	疑, 悔	주134	五言律詩		